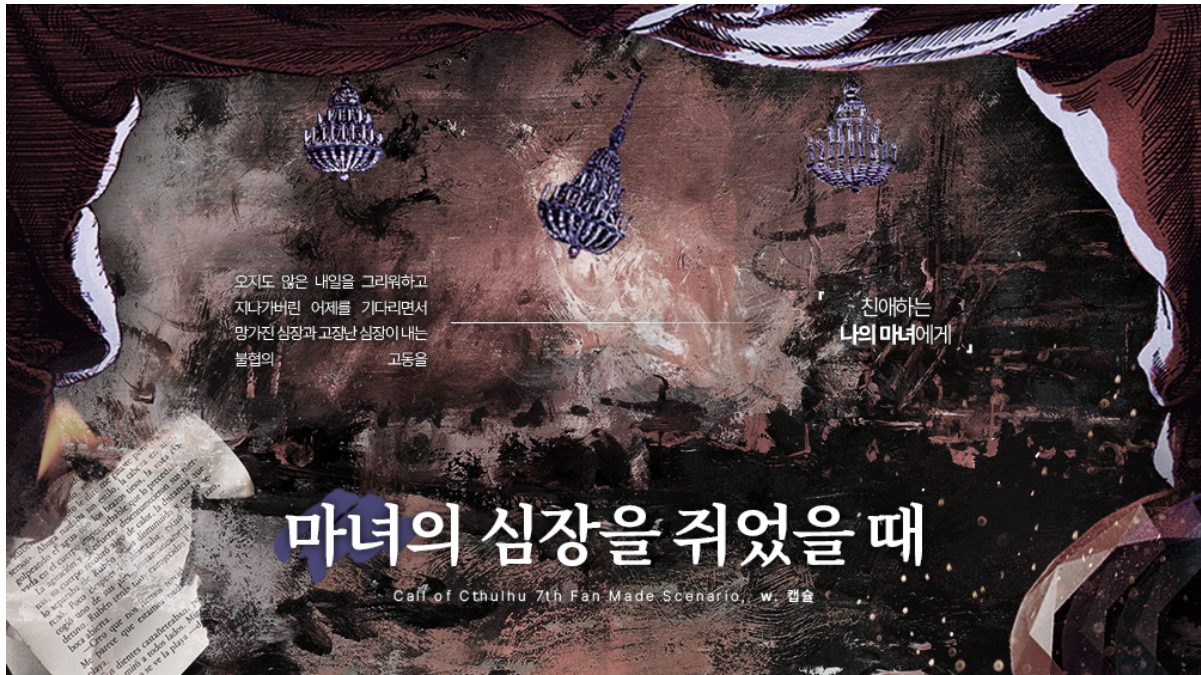


마녀의 심장을 쥐었을 때

Not natural born Witch, 2024

CoC 7th Fan Made Scenario | 2024.09.02 배포 | w. 캡슐



세션카드 살구님(@hikikopopo) 커미션

/

오지도 않은 내일을 그리워하고
지나가버린 어제를 기다리면서
망가진 심장과 고장난 심장이 내는 불협화음의 고동을
친애하는 나의 마녀에게

/

§개요

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사회에서 마법이란 존재해서는 안되는 불경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법으로 제국을 환란에 빠트린 자가 마녀라 불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당신은 이 마녀를 추적하고 잡아들인 일등공신이자, 그러기 전에 마녀에게 홀려버린 불쌍한 영혼입니다.

처형대에 오른 마녀는 전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형대가 아니라 황좌에 오른 듯이, 고고하게 치켜든 턱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비난을 환호처럼 들리게 합니다. 이젠 마치 발 아래에 수많은 이들을 거느린…….

마녀의 숨통을 끊어놓는 일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당신의 손에 의해 마녀의 마지막이 정해진다는 사실이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마녀는 당신마저 환란에 빠트린 거예요. 그저 그 때문일겁니다.

마녀의 유언은 무엇인가요?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는 아득하기만 하고, 입모양을 읽을 수조차 없습니다. 마녀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겨우 마음을 다잡고 마녀의 목을 내리친 순간…… 당신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과거의 잔상을 보게 됩니다.

아니, 잔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발을 딛고 서있는 이 곳은 마녀의 처형대가 아닌 분명한 과거의 순간입니다.

……기사단장 임명식이 있던 날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시나리오 정보

- 인원 | 1:1 타이만
- 배경 | 로맨스 판타지
- 형식 | 레일로드
- 플레이 시간 | 10시간~
- 플레이 난이도 | 下
- 키퍼링 난이도 | 中
- 추천 기능 | 관찰, 듣기, 오르기
- 로스트 가능성 | 有
- 광기 가능성 | 有

§시나리오 주의사항

- 본 시나리오의 약칭은 <마심때>입니다.
- 룰북 없는 키퍼링, 시나리오를 이용한 수익 창출 행위를 금합니다. 예외적으로 세션카드 커미션은 허용합니다. 시나리오에 삽입된 세션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의 쿠션 없는 스포일러, 시나리오에 대한 악의적인 품평 및 비하 발언을 금합니다.
- 살해, 시체 유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룰북에 등장하지 않는 창작 유물 등 신화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 진상과 엔딩 포함 모든 개변이 자유로우나 이를 재배포하는 행위는 금합니다.
- PC의 직업이 황실의 기사단장으로 고정됩니다. KPC는 여성 귀족이자 마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 자칫 1주년 한정 시나리오입니다. 본 시나리오를 T와 C에게 바칩니다.

아래로 시나리오의 진상과 본문이 이어집니다.
키퍼링 예정인 분들만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엘제어 제국에는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땅에는 마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숨어 지내야 하는 신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는 존재였습니다. 마법사들의 정체가 요그 소토스를 섬기는 사교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지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마법이 금기시 된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요그 소토스가 강림한 후부터였습니다.

제국의 역사서에는, 간신히 신을 숭환했으나 제국이 황폐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에 그 책임을 물어 마법사를 몰살하고 마법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그 소토스의 강림 주문이 나와 있는 신화서는 황성 지하에 봉인해두었다는 내용과 함께요. 그러나 모든 역사가 다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제국의 역사서에는, 목숨을 부지한 단 한 명의 마법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마법사가 바로 신화서를 봉인한 마법사입니다.

현재는 모든 제국민이 마법을 불경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지만, 마법사도 아닌 주제에 신을 강림시킨다는 행위에 매료된 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엘제어 제국의 제 4황녀, 아벨리아 엘제어입니다.

제국의 햇살이라 불리는 아벨리아는 황위 계승과는 가장 거리가 먼 황녀입니다. 겉으로는 황위에 전혀 관심도 미련도 없어 보이는 얌전한 황녀이나, 속으로는 누구보다 욕심도 질투도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벨리아는 오로지 황위 찬탈을 위해 요그 소토스를 강림 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황성 지하에 봉인되어있는 신화서를 손에 넣을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비밀리에 수소문을 해댄 끝에, 먼 옛날 몰살된 마법사들, 즉 사교도의 후손을 찾아냅니다. 신화서를 봉인한 마법사의 후손인 셈이죠. 현존하는 유일한 마법사의 이름은 타미. 아벨리아는 타미를 자신의 하인으로 들여 바로 옆에 두고 요그 소토스의 강림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미는 아벨리아에게 신화서의 봉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신을 강림시킨다는 행위의 위험성을 알지만, 아벨리아의 협박에 못이겨서요. 필요한 것은 먼 옛날 요그 소토스가 숭환되던 과정에서 이 땅에 남긴, 요그 소토스의 마력이 담긴 보석. 그 보석은 열쇠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신화서를 봉인한 마법사는 봉인 마법이 그 보석의 마력에 반응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아벨리아는 그 보석만 찾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황위에 오를 날이 머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곧 황녀의 신분으로는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의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타미 역시 황성에 소속된 하인이 되었으니 사정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사람이 끌어들인 게 KPC입니다.

KPC가 아벨리아와 타미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마법에 흥미를 느꼈을 수도 있고, 권력에 눈이 멀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전혀 다른 이유여도 상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KPC는 두 사람과 손을 잡았습니다. 만…… KPC는 머지 않아 두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애초부터 두 사람은 KPC를 보석을 찾는 수단으로만 쓴 후 마법의 흔적을 모두 뒤집어 씌워 마녀로 몰아가 용의선상에서 빠져나올 작정이었던 겁니다. KPC는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이용당할 뿐이었어요. 게다가 요그 소토스의 강림에는 제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역시 KPC가 될 예정이구요.

KPC는 두 사람에게 열쇠의 심장을 찾았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그리고는 들켜더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보석을 삼켰습니다. 열쇠의 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석은 제자리를 찾아가기라도 하듯 KPC의 심장에 박힙니다. KPC는 그 보석에 담긴 마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상태로 KPC는 황성 지하로 향합니다. 신화서를 훔쳐 달아날 요량으로요. 누군가와 마주치는 것은 예상에 없던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다름 아닌 탐사자입니다.

탐사자는 제 4황녀인 아벨리아의 휘하에 있는 기사단의 기사단장입니다. 지하로 향하는 입구를 지키고 있던 탐사자는 KPC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KPC를 막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꿈쩍도

할 수 없었거든요. 이젠 KPC의 심장에 박혀 있는 보석이 가진 마력의 영향이었는데…… 탐사자는 이 순간 자신이 KPC에게 반했다고 착각하고 맙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감정이었으니까요.

진실이 어찌 되었든 확실한 것은 탐사자가 황성에 들어온 도둑을 놓쳤다는 것이죠. 봉인된 신화서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금세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KPC는 탐사자가 고발한 거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봉인을 풀었다는 것으로 황제는 도둑을 마법사로 여기고 추적에 나섭니다. 그 선두에 선 것이 탐사자의 기사단이고요. 여기서 의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고작 제 4황녀의 휘하에 있는 기사단이 어떻게 이런 중대사를 맡을 수 있었을까요. 아벨리아는 탐사자의 실책은 곧 자신의 실책이니 만회하게 해달라는 말로 황제를 꺾어냈습니다. 속내에는 KPC를 누구보다 먼저 잡아서 신화서를 손에 넣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죠.

신화서를 훔쳐 달아난 KPC는 각종 주문을 익히며, 누군가가 뒤집어 씌운 마녀가 아닌 진짜 마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국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괴물이 나타나고, 역병이 돌고…… 마치 역사서에 기술된 아주 먼 옛날, 그 때처럼요. KPC가 요그 소토스를 강림시킨 것은 아니었으나 사람들은 경중을 구분하지 않죠. 결국 KPC는 탐사자에게 잡히게 됩니다.

KPC의 처형 역시 탐사자가 맡게 되었습니다. 탐사자는 KPC에게 여전히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KPC는 아벨리아와 타미에게 강한 복수심을 느낍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기 직전, KPC는 신화서에 나와 있던 시간을 돌리는 주문을 외웁니다. 이대로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요. 탐사자의 기억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만, 탐사자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이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이 아벨리아와 타미는 신화서에 나온 요그 소토스 강림 주문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KPC를 제물 삼아 요그 소토스를 강림 시켰죠. 이는 KPC의 목에 칼이 들어온 이후였습니다. KPC가 죽음과 동시에 회귀하면서 KPC의 심장에 박혀 있던 보석이 KPC의 몸을 빠져나왔는데, 그 보석은 바로 옆에 있던 탐사자가 손에 넣게 됩니다.

강림한 요그 소토스는 제물 주제에 감히 자신의 능력을 넘봐 과거로 가버린 KPC에게 분노합니다. 그야, 패썹하지 않나요. 요그 소토스는 마침 자신이 먼 옛날에 남겼던 열쇠의 심장을 들고 있는 탐사자를 발견하고 탐사자 역시 KPC가 떠난 과거로 보냅니다. 과거에 도착한 탐사자의 마지막 기억이 KPC의 목을 내리치던 순간인 이유는, 신을 마주한 순간 발생한 이성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요그 소토스의 일말의 배려일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KPC도 탐사자도, 서로가 회귀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KPC는 아벨리아와 타미에게 복수하기 위해 탐사자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탐사자는 아벨리아의 측근이니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렇다면 탐사자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아래는 NPC 정보입니다. 모든 사항 자유로운 개변이 가능합니다.

- 아벨리아 엘제어, 여성.
 - 곱슬거리는 금발, 청순하고 귀여운 인상. 따사로운 성격, 항상 띄고 있는 옅은 미소, 부드러운 말씨.
 - 탐사자가 소속된 기사단을 휘하에 두고 있는 제 4황녀.
 - 시나리오 진행상 NPC의 판정은 필요하지 않아 특성치와 기능치는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 타미, 남성.
 - 찰랑이는 갈발, 작은 체구, 순한 인상. 겁이 많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성격, 어리숙한 말씨.
 - 아벨리아가 찾아낸 사교도의 후손이자, 아벨리아의 하인.
 - 시나리오 진행상 NPC의 판정은 필요하지 않아 특성치와 기능치는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도입

빨간 글씨는 판정 지시, 파란 글씨는 키퍼용 메모, 녹색 글씨는 조사 포인트, 기울임 글씨는 RP 예시입니다.

(BGM : Magic Kaito 1412 Kaito Kid - 04 OST)
(<https://www.youtube.com/watch?v=Ah0anSJ8D0Y>)

“...경.”

깜빡.

“...사자...”

깜빡.

“탐사자 경?”

깜빡.

누군가의 여린 목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방금 무언가 푸른 빛이 세상을 뒤덮은 것 같았는데, 그 후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억은 처형대 위에서 마녀의 목을 내리치던…….

아, 그래요. 당신은 이 제국을 환란에 빠뜨린 마녀, KPC를 죽였습니다. KPC의 목을 내리치던 순간의 감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당신을 부른단 말인가요? 처형대 위에는 오로지 당신과 KPC 뿐이었고…… 설마, 죽은 KPC일까요.

“괜찮나요? 안색이 좋지 않은데…….”

목소리의 주인은 당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얼굴입니다. 당신이 소속된 플람 기사단이 모시고 있는 제 4황녀, 제국의 햇살이라 불리는 아벨리아 엘제어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얼굴이라는 사실이 이 상황을 이해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황성에 있어야 할 황녀가 왜…….

……어라? 주변을 둘러보면, 없어야 할 곳에 있는 건 아벨리아 황녀가 아닌 당신입니다. 찬란한 조각이 장식되어 있는 기둥과 성스러운 그림으로 뒤덮인 천장, 그 아래로 붉은 것이 걸려 있는…… 이 곳이 바로 황성입니다. 왜 당신이 황성에 있는 거죠?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아벨리아 황녀의 한 걸음 뒤에는 황제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탐사자의 대답을 이끌어 주세요. 탐사자는 기사단장 임명식 날로 회귀한 상태이며, 이어지는 아벨리아의 대사는 임명식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엘제어를 수호하는 심장에 불꽃의 가호가 깃들기를.”

아벨리아 황녀는 당신에게 다가와 왼쪽 가슴 위로 휘장을 달아줍니다. 이건……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입니다.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의 형상을 띤 금색의 브로치와, 소속된 기사단의 상징으로 축복을 내리는 기도문. 분명 기사단장 임명식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황제의 앞에서 맹세를 하고, 황제의 손으로 검을 하사받고, 황제의 입으로 임명을 선언한 후 이어지는 절차였죠. 당신이 이미 밝은 절차이기도 하고요. 그럼,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꿈이라면 당신의 몸뚱아리는 처형대 위에서 기절이라도 한 거겠죠. 꽤나 꼴사납겠습니니다. 그리 생각하니 자조적인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아요. 그러나 꿈이더라도 이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은 정해져 있으니 따라야 합니다. 아벨리아 황녀와 황제에게 경례한 후, 관중들의 박수세례와 함께 회장을 나서면 됩니다.

실제 당신의 기사단장 임명식은 그렇게 마무리 되지 않았었지만요. 하긴, 지금은 꿈일테니 달라도 상관 없겠죠. 오히려 완벽하지 못한 임명식이었으니 실제와 달라야만 하고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려던 그 때.

황!

무지막지한 굉음을 내며, 당신의 발치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찰나의 돌풍이 일 정도로 커다란 충격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당신은 이것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상들리에에서 떨어져 나온 크리스탈 조각들이 바닥에 흩뿌려집니다. 웅성거림은 커져가고, 분노한 황제의 목소리와 놀란 황녀의 비명이 이어집니다. 한 걸음만 더 갔어도 상들리에에는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졌을 겁니다. **(진상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사고입니다.)**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어떻게 완벽히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건 꿈 따위가 아닙니다. ……돌아온 겁니다, 과거로. **이성 판정(0/1).**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로 돌아오다니……. 방법은 둘째치고 이유조차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지능 판정]

성공 : ……그러고 보니 마녀의 목을 내리치기 직전 KPC가 중얼거린, 그러나 듣지 못한 마지막 말이 있죠. 혹시 저주였을까요?

실패 : ……단 한 가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을 말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바로 마법입니다. 혹시 KPC의 짓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탐사자 경! 누가 이런 짓을……!”

당신이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이라고 판단했는지 아벨리아 황녀가 다급히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주군을 안심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이 누군가의 고의가 아닌 단순한 사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기사단장으로서 맡아 진행했던 조사였으니까요.

(간단한 RP 구간입니다.)

기존의 임명식 절차와 달리 황제와 황녀가 먼저, 다음으로 관중들이 대피합니다. 수습은 기사들과 사용인들의 몫입니다. 당신은 이제 기사단장으로서 모든 상황을 지휘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럴 시간이 있나요? 당장 KPC를 찾아가도 모자랄 판인데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KPC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이겠죠. KPC는 마녀이기 이전에 공작가의 영애였습니다.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거니와, 우연을 가장한 만남도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KPC 역시 당신처럼 과거로 돌아왔을 거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요. 당신은 우선 상황을 수습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주머니에서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손을 넣어 보면 무언가가 잡힙니다. 이걸…… 엄지 손톱만한 크기의 보석이네요. **(KPC의 심장에서 빠져나온 열쇠의 심장입니다.)** 샹들리에에서 떨어져 나온 크리스탈 조각일까요? 하지만 영롱한 푸른 빛은 샹들리에의 잔해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색의 빛을 언젠가 본 것 같은데…….

정체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예사물건은 아니라는 직감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보석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벨리아 황녀의 탄일

(BGM : Waltz Ballad)

(<https://www.youtube.com/watch?v=FxOmytTfBXE>)

황성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아니, 며칠 전부터 분주했습니다만 오늘은 유독 그렇습니다. 다른 아벨리아 황녀의 탄일이기 때문이죠. 황위 계승과는 가장 거리가 멀지만 그렇기에 황제의 사랑을 듬뿍 받는, 당신이 모시는 제 4황녀 말입니다.

평소에는 비워져 있는 연회장이 각종 장식과 티푸드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벨리아 황녀가 무도회에서 입을 드레스를 새로 맞추기 위해 수많은 부티크에서 재단사가 다녀갔고요. 덕분에 당신이 소속된 플람 기사단 역시 바빠졌습니다. 초대된 귀족들의 안전과 오픈된 성문의 치안을 위해 평소보다 배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 이미 겪은 과정인데도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KPC를 마주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기억 속에 아벨리아 황녀의 탄일 무도회에서 KPC를 마주친 장면은 없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전생에서 KPC와의 첫만남이 언제였던가요. 먼 발치에서 KPC를 바라본 적은 많았지만 KPC는 아마 당신을 그 날 처음 인식했을 겁니다. 그 날, KPC가 황성 지하에 봉인되어 있던 마도서를 훔쳐 달아난 밤에요.

그 날 밤 지하로 향하는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조차 KPC의 눈을 마주친 건 그 날이 처음이었죠. 아, 로브에 반쯤 가려져 있는데도 형형하던 눈동자를 떠올리니 다시금 숨털이 쭈뼛 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기분. 단번에 매료되어 정신조차 멍해져서 입도 뻥긋 하지 못했었죠.

당신은 그렇게 KPC를 눈 앞에서 놓쳤고…… 아, 혹시 당신이 KPC를 고발한 거라고 오해했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해명조차도 당신에겐 허락되지 않네요.

어쨌든 가만히 그 날이 오기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떠오르는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지금 중요한 건 아벨리아 황녀의 탄일 무도회를 무사히 끝내는 것이겠죠. 무작정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가요. 황성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무도회장 안을 들여다 보지는 못해도 아벨리아 황녀는 즐겁게 탄일을 보내고 있겠죠. 다행히 전생에서 아벨리아 황녀의 탄일에는 아무런 사건도……

[관찰 판정]

성공 : ……그러고 보니 수상한 사람이 황성을 출입하는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문 너머로 로브를 쓴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는 것이 보입니다. 체구가 작은 것 말고는 눈에 띄는 특징이 없어 정체를 파악할 수가 없네요. 주변을 살피는 꼴이 수상하기 그지 없습니다.

실패 :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즈음, 함께 복도에서 보초를 서던 기사가 당신을 부릅니다. “단장님. 저 사람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기사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 창문 너머로 로브를 쓴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수상하군요.

(타미입니다. 타미는 아벨리아 황녀의 탄일 무도회로 황성이 시끌벅적한 틈을 타, 황성을 빠져나가 열쇠의 심장을 찾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쫓아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은 수상한 사람을 쫓아갑니다. 무도회장에서는 점점 멀어지는데, 어쨌든 수상한 사람은 커녕 로브 자락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느덧 황태자궁을 지나쳐 뒤뜰의 정원에 도착합니다. 분명 이 쪽으로 간 것 같았는데…….

[듣기 판정]

성공 : 그 때, 근처의 장미덤불 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실패 : 그 때, 근처의 장미덤불 쪽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화려한 드레스 자락입니다. 도무지 로브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차림입니다. 고개를 들어 인영의 정체를 확인해보면……

……저 얼굴은 분명 KPC입니다. 감옥에 갇혀 피골이 상접하던 물골이 아닌 생기가 도는 피부와 찰랑이는 머릿결을 가진, 마녀가 아닌 공작가의 영애 KPC요. 어째서 KPC가 이 곳에 있는 거죠? 전생에서는 이런 식으로 KPC와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KPC를 살피면 그제야 KPC가 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구두 때문인지 발목이 부어 있는 것이 보이네요. (일부러 발목을 삐었습니다. KPC에게도 회귀 후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했고, 마침내 오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탐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탐사자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 적어도 이번 만남에서 통성명은 진행해야 합니다.)

KPC를 도와주면 KPC는 가볍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기묘한 일입니다. KPC와 무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전생의 KPC에게서 느꼈던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느껴지던 그 홀린듯한 감각이……. (당시 탐사자가 KPC에게 반했다고 착각한 것은 KPC의 심장에 박혀 있던 보석의 영향이었으니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KPC는 당신을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간단한 RP 구간입니다. 만일 탐사자가 KPC에게 회귀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다면 KPC는 복수의 대상을 아벨리아와 타미에서 탐사자로까지 확장시킵니다. 왜 탐사자까지 회귀했는지는 KPC 역시 모르지만, 마녀였던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 역시 회귀했음은 철저히 숨기고 모르는 척 합시다. 이 경우 차후 END. 1의 조건을 충족했을 시 END. 4)

진짜로 KPC에게 전생의 기억이 없을 줄이야……. 순식간에 하나뿐인 실마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KPC는 당신에게 무도회장까지 에스코트를 요청합니다. 무도회장에 도착하면 KPC는 미련 없이 당신을 뒤로 하고 무도회장으로 들어섭니다. 얼핏, 닫혀가는 입구의 틈새로 보기로도 KPC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빛나는 사람인데, 전생의 KPC는 어쩌다 마녀가 된 걸까요.

……그래요. KPC가 마녀가 되기 전으로 돌아온 거라면, 마녀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대로 똑같은 인생을 한 번 더 살아야 한다면, 미래를 바꿔보는 겁니다.

§거리의 화가

(BGM : 덕임, 사랑)

(<https://www.youtube.com/watch?v=UtSlS8SRq2k>)

아벨리아 황녀의 탄일 이후 며칠이 지났을까요. 당신의 결심과는 달리 그동안 KPC는 코빼기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KPC가 마녀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집무실에 앉아 고민과 걱정을 반복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집무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는 이는 아벨리아 황녀가 얼마 전 빈민가에서 거두어 데려온 하인, 타미입니다. 황녀가 직접 데려왔는데도 당당하지 못하고 늘상 기죽어있는 모습이 전생에서도 안쓰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미는 우물쭈물하다 아벨리아 황녀가 당신을 찾는다는 말을 꺼냅니다.

당신은 타미를 따라 아벨리아 황녀의 방으로 향합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은 타미가 당신이 왔음을 알리자 잠을 없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아벨리아 황녀는 막 치장을 마친 듯 외출용 드레스를 입은 채 모자를 쓰며 당신을 맞이합니다.

“탐사자 경, 타미와 시내 구경을 나가려 하는데 동행해주시겠어요?”

(실상은 시내 구경이 아닌 열쇠의 심장을 수색하러 나가는 것이지만, 황녀가 기사 한 명 대동하지 않고 나갈 수는 없으니 탐사자를 부른 것입니다.)

아, 요컨대 당신에게 호위 역을 청하는 거군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거절해서도 안되고요. 상대가 아벨리아 황녀이기에 부탁을 하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황족이 내리는 명령과 다름 없습니다.

당신은 아벨리아 황녀와 타미의 뒤를 따라 황성을 나섭니다. 아벨리아 황녀는 타미를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거리낌없이 대하곤 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인을 뒤가 아닌 옆에 두고 걷는 황녀가 어디에 있을까요.

준비되어있는 마차에 아벨리아 황녀가 탑승하면 당신은 말 위에 오릅니다. 시내 구경을 나간다고 했었죠. 출발할까요?

시내에 도착한 후로 아벨리아 황녀와 타미는 여러 가게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타미는 이따금씩 도시의 풍경에 시선을 두기도 하는데 아벨리아 황녀는 실내를 더 선호하는 모양입니다.

[지능 판정]

성공 : 그리고 보니 아벨리아 황녀는 유독 보석상을 찾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고싶은 게 있는 걸까요?

실패 : 간혹 당신에게 길거리 음식에 대해 물어보거나 권하는 걸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지만요.

보석상을 구경하고 나오니 멀지 않은 곳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옵니다. 무슨 일이라도 난 걸까요? 아니, 이 웅성거림은 아벨리아 황녀가 마차에서 내렸을 때 들려온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난 걸까요?

당신은 어렵지 않게 주인공을 목격합니다. 인파를 가르고 나타나는 얼굴은, 아벨리아 황녀만큼이나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KPC입니다. 만나고자 할 때에는 결코 볼 수 없던 이가 이토록 우연적으로 눈 앞에 나타나다뇨.

KPC는 곧 아벨리아 황녀를 발견하고는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주변에 호위는 없는 모양이네요. 시녀와 단 둘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녀를 만나다니, 운이 좋네요. 그런데…… 호위도 없이 홀로 외출한 건가요?”

아벨리아 황녀도 그걸 알아차렸는지 걱정스런 표정으로 KPC가 단신으로 외출한 것을 지적합니다. 시녀가 있으니 완전히 단신이라 할 수도 없지만, KPC는 개의치 않다는 듯 아벨리아 황녀에게 대꾸합니다. ……어라, 그런데 방금 당신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나요? 분명합니다. 대놓고 응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KPC의 눈은 아벨리아 황녀가 아닌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럼 황녀님의 호위를 잠시 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의문을 갖기도 전에 들려오는 KPC의…… 당신이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아,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KPC의 눈이 당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황성에서 마주쳤던 것을 기억하는 걸까요? 어차피 당신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결정은 아벨리아 황녀가 할 테니까요.

아벨리아 황녀는 흔쾌히 KPC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자신은 타미가 있으니 괜찮다면서요. (탐사자가 없는 편이 열쇠의 심장을 수색하기 수월하니 당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타미는 호위 역에 적합해 보이지 않지만…… 이건 당신에게도 기회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계기로 KPC와 친분을 쌓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황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의 책임이 되겠죠.

“탐사자 경, 그리 해도 괜찮나요?”

아벨리아 황녀는 뒤늦게 당신의 의사를 물어옵니다. (탐사자가 거절한다면 아벨리아 황녀와 KPC 모두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집니다. 그리고 황성으로 돌아간 후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수락하면 아벨리아 황녀는 한시간 후 마차 앞에 가 있겠다는 말을 끝으로 타미와 함께 사라집니다. 당신에게는 한시간이 주어진 셈이군요. KPC는 말없이 앞장 서 걸어 갑니다. 시녀가 양산을 들고 후다닥 뒤를 따르네요. 자, 당신도 가볼까요?

(지금부터 KPC가 탐사자에게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의도된 수작입니다. 탐사자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KPC가 향한 곳은 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티크입니다. 부티크로 들어서자마자 재단사로 보이는 자가 뛰쳐나와 환대를 하네요. 한 눈에 보기에 휘황찬란한 드레스들이 벽을 빼곡히 메우고 있습니다.

“예약해둔 드레스는?”

“바로 시착해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단사는 연신 굽신거리며 KPC를 안쪽으로 모십니다. 드레스가 준비되는 동안 소파에 앉아 기다려 달라면서요. KPC는 제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두꺼운 카탈로그를 훑어봅니다.

“탐사자 경, 경이 보기에는 이 중 어떤 드레스가 가장 예쁜가요.”

그러다 문득, 당신 쪽으로 카탈로그를 펼치며 물어오네요. 무도회용 드레스가 아닌 외출용 드레스를 모아둔 카탈로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드레스를 고르면 KPC는 재단사에게 그 드레스를 함께 준비해달라 말합니다. 재단사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 당신을 힐끔 관찰하네요.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떤 드레스가 예뻐 보이는지 궁금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KPC는 예약해 뒀던 드레스를 시착하러 피팅룸에 들어섭니다.

이윽고 피팅룸의 커튼이 젖혀집니다. 새 드레스를 입은 KPC의 모습이 드러나자마자 재단사와 부티크의 직원들은 하나같이 손을 모아 박수를 치며 극찬을 해줍니다. KPC의 시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저 사탕발림으로 치부하기에는…… 당신이 보기에 KPC의 자태는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탐사자 경.”

KPC가 이리저리 몸을 돌릴 때마다 드레스 자락이 우아하게 나풀거립니다. 저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는 KPC의 모습이 저절로 상상이 될 만큼 잘 어울립니다.

KPC는 당신의 대답을 듣고서야 다시 커튼을 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입고 등장한 드레스는 당신이 골랐던 바로 그 드레스입니다. 외출용이니 직전에 입었던 드레스보다는 덜 화려하지만 오히려 가볍기 때문에 KPC가 더 돋보이네요. 당신의 안목이 뛰어난 건지 KPC의 소화력이 좋은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딱 맞네요! 따로 수선할 필요도 없겠어요!”

KPC는 홀로 거울을 들여다 보더니, 드레스가 마음에 들었는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 입고 가도록 하지. 입고 왔던 드레스랑 예약했던 드레스는 공작저로 보내주게.”

“더 구경하시지 않고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재단사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다 허리 숙여 인사하며 떠나려는 KPC를 배웅합니다.

부티크를 나온 뒤로는 보석상과 서점에 들러 장신구와 책을 잔뜩 구입했습니다. 드레스와 마찬가지로 공작저로 보내질 것들이라, 지금 손에 들린 것은 오직 KPC의 가방, 시녀의 양산, 당신의 검 뿐입니다. KPC는 가방에서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확인합니다. 아벨리아 황녀와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탐사자 경, 오늘은 수고…….”

KPC는 당신을 이만 아벨리아 황녀에게 보내려는 듯 서두를 엽니다. 그런데 말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어딘가를 바라보며 말꼬리를 흐리네요. KPC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 거리 한복판에 이젤과 캔버스를 놓고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는 화가가 있습니다.

“잠시 정도는 괜찮죠?”

아무래도 그림을 맡기고 싶은지 KPC는 거리의 화가에게로 걸음을 옮깁니다. 의외네요. 공작가의 영애라 정식으로 의뢰한 초상화만 취급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건 거리의 화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KPC를 보고 상당히 놀란 기색입니다. **(만일 탐사자가 왜 갑자기 초상화를 그리는지 따위를 물으면 탐사자가 예쁘다고 한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남기고자 한다고 대답해주세요. 이 역시 당연히 수작입니다.)**

그럼에도 KPC의 얼굴은 차곡차곡 캔버스 위에 수놓아집니다. 빠른 속도라 연필선이 다소 거친데도 상당히 사실적인 초상화입니다. KPC는 거리의 화가에게 옷돈을 얹어 주고는, 당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진짜 보내려는 걸까요?

“탐사자 정도 그리지 그래요.”

당신이 거절해도 KPC는 완강합니다. 호위를 해준 보답이라나요.

KPC가 앉아 있던 자리에 당신이 앉으면 화가는 KPC의 것과 같은 속도로 당신의 얼굴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지만, 모델이 된 모습을 KPC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집니다. 말이라도 오가면 좀 나갈까요?

(간단한 RP 구간입니다.)

그 때, 거리의 화가가 초상화의 완성을 알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완성된 초상화를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KPC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건 나중에 드리도록 하죠.”

……도대체 무슨 심산인 거죠? 호위를 해준 보답이라면서요? 농담이라기에는, KPC는 정말로 당신의 초상화까지 가지고 등을 돌립니다. 나중에 기약되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해야 하는 걸까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만 마차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벨리아 황녀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어요.

§사투의 뱃놀이

(BGM : Flower's water)

(<https://www.youtube.com/watch?v=vzRXVQ5Oh3Y>)

아벨리아 황녀가 외출 금지령을 받았다는 소문이 황성에 파다합니다. 당신 역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실을 소문으로 접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명을 전하던 시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 듯합니다.

아벨리아 황녀는 타미를 데려온 이후, 타미에게 경험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틈만 나면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따라나선 것도 KPC를 만난 그 날을 제외하고도 몇 번이나 되구요. 아벨리아 황녀가 아무리 황제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황제가 단단히 버린 모양입니다. 애초 타미의 출신이 빈민가라는 것도 황제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외출 금지령은 전생에서도 있었던 일이었기에 그다지 놀랍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신에게 책을 건네주며 황실 도서관에 반납해달라 부탁하던 아벨리아 황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축 처져있던 목소리가 측은하긴 하네요.

책이 꽤나 두껍습니다. 어서 황실 도서관으로 갑시다.

황실 도서관은 아벨리아 황녀가 머무는 궁이 아닌 본궁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법 걸어야겠군요. 공기에 은은한 꽃향기가 실려 오는 날씨가 꽤 한적합니다. 상쾌한 공기를 만끽하며 걷다보면, 복도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얼굴은 궁이 노력하지 않아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KPC입니다.

그리고보니 전생에서도 아벨리아 황녀가 외출 금지령을 당한 후 KPC를 자주 황성으로 불렀었죠. 은근 가까운 사이였나 봅니다. 당신도 황성에 방문한 KPC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서요. 그 때 KPC는 당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었는데……. (아벨리아 황녀가 KPC에게 마법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 부른 날입니다. 전생에서 KPC는 아벨리아 황녀의 제안을 수락했지만, 이번에는 거절 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이네요, 탐사자 경.”

KPC가 먼저 발을 멈추고 당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간단한 RP 구간입니다.)

곧이어 KPC는 당신의 손에 들린 책을 발견합니다. 그제야 책을 살펴보면, 책의 정체는 다름 아닌 엘제어 제국의 **역사서**입니다.

“탐사자 경은 제국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관심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주군의 관심사라면 더더욱.”

주군이라 함은 아벨리아 황녀를 뜻하는 거겠죠. ……아차, 지금은 KPC와 오래 대화를 나눌 때가 아닙니다. 아벨리아 황녀의 심부름을 완수해야죠. KPC도 마찬가지로였는지 슬슬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낌새가 느껴집니다.

“혹시 다음주에 시간 되시나요.”

“뱃놀이를 갈 예정인데 탐사자 경이 함께 해주셨으면 해서요.”

“그림을 받아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탐사자가 거절한다면 황실 도서관에 책을 반납한 후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약속이 성사되면 KPC가 먼저 자리를 떠납니다. 방향은 역시나 아벨리아 황녀가 머무는 궁이네요. 당신도 어서 황실 도서관으로 갑시다.

[역사서]

유독 많이 읽은 부분이 있는 건지 혈겁게 펼쳐지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 하여 마법사들이 신을 이 땅에 강림시켰다. 그러나 신은 이 땅에 번영이 아닌 파멸을 불러왔다. 괴물이 나타나고 역병이 돌았으며…… ……간신히 신을 숭화했으나 제국이 황폐화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고…… ……그 책임을 물어 마법사들을 몰살하고 마법을 금기시켰다. 신의 강림 주문이 나와 있는 마도서는 황성 지하에 봉인해두었다.

신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마법을 배척하기 시작한 이유였죠. 역사서에는 짧은 구절로만 나와있습니다. 이 마도서가 전생에서 KPC가 훔쳤던 것이었죠. KPC가 마도서를 훔친 이후 괴물이 나타나고 역병이 돌았었고요.

(BGM : Acoustic Café)

(https://www.youtube.com/watch?v=STGe54blV_0)

일주일의 지나고, KPC와 뱃놀이를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오늘을 위해 휴가를 하루 써야 했죠. 수도에서도 뱃놀이는 즐길 수 있지만, 며칠 전 KPC는 수도 바로 옆 마을인 샤투에서 뱃놀이를 할 거라고 알려 왔습니다. 강변에 위치한 마을이라 뱃놀이 명소라고 하더군요. **(샤투는 프랑스의 지명을 빌려왔습니다.)**

샤투로 가는 길. 말 위가 아닌 마차 안에 KPC와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이 낯섭니다. 게다가 KPC는 시내 부티크에서 당신이 골랐던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녀 한 명조차도 대동하지 않았네요.

(간단한 RP 구간입니다. 그림을 핑계로 약속을 잡았으니, 탐사자의 초상화를 가져왔다면 보여줍니다.)

대화를 나누다보면 어느덧 마차가 멈추고, 마부가 샤투에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언뜻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푸르른 녹음으로 가득합니다.

마차에서 내리면 낮은 언덕 바로 아래로 강줄기가 보이고, 물에 정박해있는 화려한 나룻배가 KPC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척에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네요. 마부는 오후 중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다시 다그다다그다 마차를 몰고 떠납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뱃사공이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KPC와 당신을 반깁니다.

“탐사자 경, 노를 저을 줄 아나요?”

(탐사자의 대답에 따라 뱃사공의 탑승 유무가 결정됩니다. 노를 저을 줄 안다면 뱃사공은 오르지 않고, 노를 저을 줄 모른다면 어쩔 수 없이 뱃사공이 함께 탑승합니다. KPC는 웬만하면 탐사자와 단 둘이 탑승하기를 원합니다.)

나룻배가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노의 움직임에 따라 생겨나는 에메랄드 빛 윤슬과, 멀리 다른 나룻배에서 전해져오는 가벼운 웃음소리, 선선한 강바람에 사랑살랑 나부끼는 KPC의 머리칼……. 눈 앞에 펼쳐진 풍경은 지나치게 상냥합니다.

(RP 구간입니다. 뱃놀이를 기점으로 KPC는 탐사자를 복수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상관 없습니다. 유대를 쌓아주세요. 만일 앞서 탐사자가 회귀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해 복수의 대상이 탐사자로까지 확장되었다면 전혀 유대감이 쌓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혹은 차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 때, 갑작스레 강한 돌풍이 불어와 배가 살짝 흔들립니다. 물가라 그런지 바람결이 바뀌는 것이 제멋대로네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니…… 아, 분명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도 맞은 편 KPC의 주변은 마치 화폭 같습니다. KPC의 모자가 날아가 허공을 한 바퀴 그리는 모습이 아주 느리게 재생됩니다. 살포시 강 위에 안착한 모자는 물결을 따라 점점 떠내려갑니다.

“아…….”

KPC의 시선이 모자에 꽂힙니다. 모자야 차고 넘치게 많을 공작가의 영애인데도 아쉬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착각일까요?

모자를 건지려고 하면,

[행운 판정]

어려운 성공 이상 : 간신히 모자에 닿나 싶더니…… 기우뚱,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풍덩! 모자는 손에 넣었지만 결국 물에 빠진 생쥐 꼴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KPC는 빠지지 않아 다행인 걸까요.

실패 : 잡으려하면 할 수록 모자는 야속하게도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다 기우뚱, 배가 균형을 잃고 휘청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풍덩! 결국 반대로 뒤집혀버립니다. 시야를 가득 채운 포말 사이로 함께 물에 빠진 KPC의 인영이 보입니다.

(만일 탐사자가 물에 직접 뛰어들 경우 판정은 생략합니다. 또한 모자를 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뱃놀이가 끝난 후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옷이 물을 잔뜩 머금어 무거워진 몸으로 다시 배에 오릅니다. 아무래도 뱃놀이를 더 이어가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물에서 지켜보던 뱃사공이 안절부절 하는 것이 멀리서도 느껴집니다.

땅을 딛고 서면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에 발 아래 땅이 젖어듭니다. 험레벌떡 다가온 뱃사공은 근처에 오두막이 있으니 쉬었다 가라며 손짓으로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오두막 한 채가 보입니다.

뱃사공을 따라 도착한 오두막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또 정갈합니다. 뱃사공들이 휴식을 취하는 오두막이라 소박하지만 그래도 몸을 말리기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뱃사공은 능숙하게 벽난로에 불을 피워두고 수건을 챙깁니다. 그리고는 갈아입을만한 옷을 가져 오겠다며 오두막을 나섭니다. 어색한 정적만이 오두막을 채웁니다.

(RP 구간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슬슬 마부가 돌아오기로 했던 시간입니다. 제법 둔탁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조심스레 들어오는 뱃사공의 손에는 수수한 디자인의 셔츠와 바지, 그리고 드레스 한 벌이 들려 있습니다. 뱃사공의 사정으로는 아마 옷까지 가져오기는 무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고개를 숙이는 건 KPC가 공작가의 영애이기 때문이겠죠.

“죄송합니다, 공녀님. 입으시던 것처럼 좋은 드레스는 구할 수가 없어서…….”

“됐네. 그냥 공작저로 돌아가지.”

“경은 갈아입고 나오도록 해요.”

KPC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각또각 오두막을 나섭니다. 당신은 옷을 빠르게 갈아입은 후 KPC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KPC가 옷을 갈아입어도, 탐사자가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마부가 KPC의 꼴을 본다면 뒤로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공작가의 사용인들까지도요. (KPC의 기분과는 별개로, KPC는 아벨리아 황녀를 죽인다면 이 곳이 은폐하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타미의 행방

(BGM : Dark Waltz)

(<https://www.youtube.com/watch?v=B4XwB9WYEek>)

KPC는 더이상 마녀가 아닙니다. 그건 KPC와의 뱃놀이 이후로 더 확실해졌습니다. 지금의 KPC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바뀐 미래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는 직감이 듭니다. 어쩐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황성의 분위기는 당신의 기분과는 반대로 우중충하기만 합니다. 무슨 일인지 아벨리아 황녀를 모시는 사용인들이 곤란한 낯으로 아벨리아 황녀의 방 앞을 서성이고만 있네요. 굳게 닫힌 문 안쪽에서는 열은 흘쩍임 소리가 흘러 나옵니다. 당신이 문을 두드리면 들어오라는 아벨리아 황녀의 잠긴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벨리아 황녀가 당신에게 달려와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타미, 타미가 없어졌어요. 탐사자 경, 타미를 찾아 주세요. 제발요…….”

꼭 맞잡은 두 손, 불안한 듯한 눈동자, 안절부절한 표정……。 고작 하인 한 명이 없어진 것치고는 과한 반응이지 싶다가도, 아벨리아 황녀의 성정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지 싶습니다. 게다가 아벨리아 황녀는 직접 거둔 타미를 많이 아꼈으니까요.

그나저나 이상합니다. 전생에서는 타미가 없어지는 사건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이것도 바뀐 미래 중 하나인 걸까요? 우선은 아벨리아 황녀를 안심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RP 구간입니다. 타미는 복수의 시작을 위해 KPC가 데려갔습니다. 타미가 언제부터 없어진 거냐고 물어보면 어제 만찬까지는 함께 있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벨리아 황녀의 방에서 나오면 서성이던 사용인들이 아벨리아 황녀의 안부를 물어옵니다. 적당히 대답해주고 타미를 찾으러 갑시다.

(타미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가든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지만, 탐사자가 진행 방향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한다면 아이디어 판정을 통해 타미를 데려왔던 빈민가 근처부터 수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스크립트를 송출해주시기 바랍니다.)

(BGM : Madcap Masquerade)

(<https://www.youtube.com/watch?v=eBp7UNtau7g>)

단서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 사람을 어떤 식으로 찾아야 하는 걸까요. 막막하기만 합니다. 수소문을 해보아도 타미를 봤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산등성이를 넘어갑니다. 수색은 내일 이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찰 판정]

성공 : 그 때, 근처 건물의 외벽 모서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불이라도 난 걸까요? ……그러나 당신은 곧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연기에서 짐승의 머리와 몸통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이글거리는 눈, 박동하는 푸른 피부…… 그것들을 가진 짐승이 정확히 당신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성 판정(0/1).**

실패 : 그 때, 근처 골목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튀어나와 당신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혹시 타미일까요? 당신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사람이 아닌 짐승입니다, 만…… 생김새가 공포스럽고 기괴하기 그지 없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이글거리는 눈, 박동하는 푸른 피부…… 그것들을 가진 짐승은 정확히 당신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성 판정(0/1).**

(틴달로스의 사냥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룰북 309p. 참조 바랍니다. 탐사자의 회귀는 자의가 아니었지만 탐사자 역시 시간 여행자나 다름 없으므로 틴달로스의 사냥개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요그 소토스를 만난 이후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틴달로스의 사냥개에게 인식당했다는 기억도 없는 것입니다.)

짐승보다는 괴물에 가까운 저것과 맞붙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괴물이 나타난 거죠? 전생에서는 마녀의 짓이었고, 지금의 KPC는 마녀가 아닌데……。 아니,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본능이 외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플레이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면 추적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괴물은 한계 없는 속도로 당신을 쫓아오는데, 당신은 아무리 제국의 기사단장이라 할지라도 한낱 인간인지라 점점 바닥을 보이는 체력을 어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대로 저 괴물에게 잡혀 처참하게 죽게 되는 걸까요. 아득하게 주마등이 스칩니다. 머나먼 전생의 기억들 속, 어린 시절 가족들과의 추억, 두 번의 기사단장 임명식 날과, 당신이 고른 드레스를 입고 있는……

“탐사자 경!”

KPC. ……잠깐, KPC?

틀림없는 KPC의 목소리입니다.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승마복 차림의 KPC가 빠르게 말을 몰아 당신의 앞에 다다릅니다. 어째서 KPC가 이 곳에 있는 거죠?

(KPC는 틴달로스의 사냥개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저 탐사자를 찾아왔을 뿐입니다. 운 좋게도 KPC는 회귀하면서 틴달로스의 사냥개에게 인식되지 않았습니.)

“어서 올라타요!”

KPC는 여전히 뒤를 쫓아오고 있는 괴물을 바라보며 당신을 닥달합니다. 우선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생각합시다.

KPC의 뒤에 올라타면, KPC는 능숙한 솜씨로 말을 몰아 괴물을 따돌립니다. 그런데…… KPC는 더이상 괴물이 보이지 않음에도 속도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괴물에게서 도망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요.

“……항성도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 몸을 숨겨요.”

(KPC는 틴달로스의 사냥개를 아벨리아 황녀가 소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라니,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미처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다름아닌 공작저였으니까요.

“오셨습니까, 아가씨.”

말에서 내린 KPC는 마중을 나온 집사에게 당신을 데리고 들어가라 명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데리고 마굿간 쪽으로 사라집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KPC를 기다리는 것 뿐이겠죠. 집사는 당신을 데리고 공작저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아가씨께서 오실 겁니다.”

집사가 안내한 곳은 KPC의 방입니다. 달각,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남은 것은 당신 혼자입니다.

방 안을 둘러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침대입니다. 옆으로는 화장대와 소파 테이블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출입문과는 또 다른 문이 하나, 창 너머로는 테라스가 보이네요.

[침대]

순백의 캐노피가 달려 있는 침대입니다. 바로 옆 협탁에는 깔끔한 디자인의 램프와 그림 한 점이 놓여 있네요. 거리에서 당신과 함께 그렸던 KPC의 초상화입니다.

[화장대]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은 거울이 달려 있는 화장대입니다. 급하게 던져둔 건지 화장대 위로 한 쌍의 귀걸이와 목걸이가 이리저리 엉킨 채로 놓여 있네요.

[소파 테이블]

상당히 폭신해보이는 소파와 무릎 높이의 낮은 대리석 테이블입니다. KPC가 올 때까지 이곳에 앉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스]

테라스가 훤히 보이게 커튼을 젖혀 두었네요. 한 구석에 티 테이블이 놓여 있는, 꽤나 넓직한 테라스입니다. 마당에 커다란 나무가 자라 있어 티 테이블 쪽에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BGM : House Of Glass)

(<https://www.youtube.com/watch?v=9o6ezE9HMUM>)

안쪽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보이는 공간은 집무실입니다. 화사한 분위기의 침실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의 방이라 그런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상과, 접객용 테이블 근처로 벽난로도 보입니다.

[책상]

제목이 적혀있지 않은 얇은 책이 한 권 놓여 있습니다. 펼쳐보면, 책이 아니라 노트군요. 빼곡히 적혀 있는 것들은 뜻을 알 수 없는 문장들 뿐입니다. 제국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묘한 발음, 차마 소리 내어 읽을 수조차 없는 문장들이요. 대체 이 문장들의 정체가 무엇이죠? (신화서에 나와 있던 주문들입니다. 다만 KPC는 전생을 기록해두느라 적어뒀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습시다. KPC가 전생에서 마법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심장에 마력이 담긴 열쇠의 심장이 박혀있었기 때문이라 지금은 마법을 쓸 수 없습시다.)

몇 장 더 넘겨보면, 다음 장에는 아벨리아 황녀의 거취가 적혀 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세세합니다. 어디에도 아벨리아 황녀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데도 당신이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과거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까지 적혀 있는 거죠?

노트를 다시 덮으면, 종이 한 장이 팔랑이며 떨어집니다. 색이 다른 종이인 걸 보니 나중에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종이에 보석이 하나 그려져 있네요. 그런데 이 보석…… 생김새가 낯설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아, 당신이 과거로 돌아온 후 발견했던 엄지 손톱만한 크기의 보석입니다.

[관찰 판정]

성공 : 보석 그림 바로 옆에는 열쇠의 심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패 : 보석 그림 바로 옆에는 심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번져서 잘 보이지 않네요.

[벽난로]

불이 꺼져 있는 벽난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위쪽의 벽돌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는 것 같네요. 벽돌을 건들면, 펼쳐지는 광경은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벽난로가 옆으로 움직이더니, 그 뒤로 또 다른 공간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놀라긴 이릅니다. 그 곳에 있는 건…… 바로 타미입니다. 타미는 당신을 보고 놀란 듯 하더니 황급히 다가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타미는 탐사자가 무엇을 물어보든 KPC가 자신을 데리고 왔다,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만 대답합니다. 자신과 아벨리아 황녀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으니까요.)

KPC는 왜 타미를 가둬둔 걸까요? 분명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도무지……. 타미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면 집무실 바깥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탐사자 경.”

KPC네요. 승마복 차림이 아닌 드레스 차림인 걸 보니 새로 단장을 하고 온 모양입니다. KPC는 집무실 안 쪽으로 들어와 당신과 타미를 번갈아 보더니 열은 한숨을 내쉽니다. ……범죄를 들킨 자가 보일 반응은 아니에요. 지금 드는 감정은 무엇이죠? 분노인가요. 슬픔인가요. 배신감인가요. 그도 아니라면…….

(RP 구간입니다. KPC는 탐사자의 물음에 대부분 솔직히 대답합니다. 탐사자를 자신의 복수에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했다고요. 그 복수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즉, 아벨리아 황녀와 타미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탐사자의 질문으로 탐사자 역시 회귀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KPC 또한 충격을 받습니다. 만일 앞서 탐사자가 회귀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면 생략합니다.)

KPC가 마녀가 되지 않도록 막아냈다고, 미래를 바꿨다고 믿었는데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니……. KPC는 여전히 마녀였고, 심지어는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했다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껏 무엇을 해온 걸까요. 게다가 KPC의 정체를 알게 된 이 순간에도 과거로 돌아온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더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합니다. 타미를 데리고 공작저를 떠납시다.

§아벨리아 황녀의 의뢰

(BGM : Chasing Kou)

(<https://www.youtube.com/watch?v=9ELaTGB32kw>)

타미를 찾은 후 아벨리아 황녀는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잘 된 일입니다.

아벨리아 황녀가 당신의 공을 치하하겠다고 선포한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KPC를 보지 못한 것도 며칠이 지났다는 의미고요. 그저 이대로 지내면 되는 걸까요? 또다시 KPC가 제국을 환란에 빠뜨리길라도 하면…….

그 때, 누군가가 집무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는 이는…… 타미네요. 타미는 아벨리아 황녀가 당신을 찾다는 말을 꺼냅니다. 언젠가 이런 적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하늘이 캄캄해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아벨리아 황녀가 당신을 찾는 목적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 공을 치하하기 위해 부르는 것일 테죠.

당신은 타미를 따라 아벨리아 황녀의 방으로 향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굳게 닫혀있던 문은 타미가 당신이 왔음을 알리자 잠을 없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아벨리아 황녀는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당신을 맞이합니다.

“부탁이 있어서요. 이걸 이 주소로 가서 주인장에게 전달해주시겠어요?”

……아벨리아 황녀의 부탁 아닌 부탁은 당신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아벨리아 황녀는 당신에게 서류 봉투 하나와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넵니다. 이번에도 역시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해서도 안되고요.

당신은 서류 봉투와 쪽지를 받아들고 아벨리아 황녀의 방을 나섭니다.

주소를 확인해보면, 꽤나 외진 곳에 위치한 술집의 주소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떠올립니다. 아벨리아 황녀와 술집이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네요. ……문득 KPC의 노트에 적혀 있던 아벨리아 황녀의 거취가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생에서는 아벨리아 황녀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마녀와는 별개로, 이미 많은 순간이 전생과 달라진 것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묘하게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야…… 그 모든 순간에 늘 KPC의 개입이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이 서류 봉투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서류 봉투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두 장의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꺼내보면……. 첫 번째 장은 길드의 의뢰서입니다. 이 역시 아벨리아 황녀와 어울리는 조합은 아닙니다. 적혀있는 의뢰자의 이름도 가명인 것 같고요. 제시한 보수가 제법 크네요. 어떤 의뢰길래…….

……당신이 잘못 본 걸까요? 어떻게 아벨리아 황녀가 남모르게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는 걸까요. 의뢰 내용이 암살이라뇨. 제국의 햇살이라 불리는 아벨리아 황녀가…….

두 번째 장에는 누군가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암살 대상의 얼굴이겠죠. ……그게 KPC의 얼굴임을 당신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타미 때문일까요? KPC가 타미를 납치했기 때문에? 타미가 아벨리아 황녀에게 KPC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아벨리아 황녀가 KPC에게 양심을 품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벨리아 황녀와 KPC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아무리 아벨리아 황녀를 이해해보려 해도……. (아벨리아 황녀가 KPC를 암살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KPC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는 KPC를 살려둘 순 없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이 서류 봉투를 술집에, 길드에 가져다 줄 건가요? 그렇다면 KPC는 죽을 겁니다. 마녀로 인해 제국이 황폐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KPC가 죽을 겁니다…….

길드에 암살을 의뢰할 경우 **END. 5**

당신은 처음으로 당신이 모시는 주군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심합니다. KPC가 마녀라고 하더라도, 머지 않은 미래에 이 제국을 황폐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한 거라고 하더라도, 당신은 KPC를…….

KPC를 찾아잡시다. KPC가 위험하다고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화를 다시 나눠보는 겁니다.

당신은 공작저로 향합니다. 대문 앞은 문지기 한 명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당신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면, 누군가를 저택 안으로 들이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늦었다는 것이겠죠.

(시나리오에 공작저에 잠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연히 대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대인기능 판정을 통해 문지기를 설득하거나, 협박하거나, 유혹하거나, 속이세요. 문지기가 KPC에게 탐사자가 찾아왔다는 말을 전하면 KPC는 탐사자를 들여보내줍니다. 대인기능 판정에 실패할 경우 방법은 잠입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잠입에 실패할 경우 대인기능 판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작저에 몰래 들어가는 황실 기사단장이라니. 전생에서 황성 지하에 몰래 들어간 마녀와 처지가 반대가 되었군요. 문지기에게 들키지 않게 대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담장을 넘어갑시다.

[오르기 판정]

성공 : 다행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담을 넘었습니다.

실패 : 잡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지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르기 판정에서 연달아 실패할 경우 관찰 판정 혹은 행운 판정으로 담장 아래로 나 있는 구멍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KPC의 방은 2층이었죠. 마당에 테라스까지 자라 있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당을 살펴보면 금방 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커다란 나무는 하나 뿐이군요. (탐사자가 앞선 조사에서 테라스를 살펴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KPC의 방 근처에 2층까지 자라 있는 커다란 나무가 보인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르기 판정]

성공 : 손쉽게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무사히 테라스에 안착합니다.

실패 : 발을 헛디딘 모양인지 미끄러져 내립니다. 손바닥이 따갑네요.

(오르기 판정에서 연달아 실패할 경우 탐사자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KPC가 테라스로 나와봅니다. 사다리를 내려줄 수도 있겠고, 직접 탐사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두워서 그런 건지, 커튼을 쳐둬서 그런 건지 방 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테라스의 창문은 굳게 닫혀있고요. 당신은 창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KPC가 방에 있는 건 맞겠죠? 혹시라도 자고 있다면 어찌죠? 조바심에 다시 한 번 창문을 두드리려 할 때, ……커튼이 젖혀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KPC의 얼굴 위로 달빛이 드리웁니다. KPC는 한밤중의 불청객이 다름아닌 당신임을 확인하고는 마침내 창문을 열어줍니다.

“나를 죽이러 왔나요?”

“내가 찾아가지 않는 이상, 나를 찾아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화라면 안에서 하죠.”

당신이 방 안으로 발을 들이고 나서야 KPC는 다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칩니다. 불을 밝히니 KPC의 차림이 유독 눈에 띄네요. KPC는 속이 비칠 듯 얇은 잠옷 위로 고작 솔 한 장을 걸치고는, 소파도 아닌 침대에 풀썩 앉습니다.

(RP 구간입니다. 탐사자는 KPC에게, KPC는 탐사자에게 아벨리아 황녀의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아벨리아 황녀가 KPC를 죽이려 한다고, 아벨리아 황녀가 신을 강림시키려 한다고요. 서로의 마음도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KPC의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더는 아벨리아 황녀조차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기가, 당신은 이미 당신이 따르던 주군의 명령을 저버리고 KPC에게 온 거였죠.

“나는 아벨리아 황녀를 죽일 거예요.”

“아벨리아 황녀의 외출 금지령은 곧 풀릴 거예요. 그럼 탐사자 경이 아벨리아 황녀를 유인해줘요.”

아벨리아 황녀의 외출 금지령이 곧 풀린다는 건 당신도 기억이 납니다만……. 당신의 마음이 KPC에게로 기울어 있는 것이 아벨리아 황녀를 죽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KPC는 복수를 할 거라 했었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음모를 세웠다고는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 전이니깐요.

KPC는 결정을 내린다면 샤투의 오두막으로 아벨리아 황녀를 데려오라 말하고는 밝혔던 불을 끕니다.

당신에게 내려진 축객령입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아벨리아 황녀를 죽여야만 하는지,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지……. 결정을 내리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열쇠의 금지된 노래

(BGM : The Dreams That Stuff Is Made Of)

(<https://www.youtube.com/watch?v=UWArxz5tOMg>)

오늘 황성 정원에는 장미꽃보다도 웃음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외출 금지령이 곧 풀린다는 걸 당연히 모르는 아벨리아 황녀가 귀족 영애들에게 티파티 초대장을 보냈거든요. 당신은 전생에서도 오늘 오랑제리의 앞을 지키고 있었죠. 전생과 다른 점이 있다면, 티파티에 KPC가 초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KPC. KPC를 떠올리니 근심이 깊어집니다.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탐사자 경, 잠시 이쪽으로.”

아벨리아 황녀는 길드에 의뢰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해사한 얼굴로 당신을 부를리가 없죠. 당신이 아벨리아 황녀의 곁으로 다가가면 아벨리아 황녀는 귀족 영애들에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제가 하인을 한 명 거둔 것은 다들 알고 있죠?”

“얼마 전 그 아이가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탐사자 경이 무사히 찾아주셨답니다.”

“약소하지만 이 자리에서 공을 치하하기 위해 불렀어요.”

“탐사자 경, 제작에 시간이 걸려 이제야 드리네요.”

귀족 영애들이 너도나도 탄성을 내뿜으며 부채로 입가를 가립니다. 부채 위로 휘어진 눈들만이 당신에게 꽂힙니다. 공을 치하할 거라 선포하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할 줄은 몰랐는데요. 이건 아마 당신을 꺾아 내리려는 의도라기보다는, 타미를 아낀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일겁니다.

아벨리아 황녀가 가볍게 손짓하자 타미가 무언가를 들고 당신에게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앞으로 내밀어진 건 천으로 감싼 기다란 무언가입니다.

“부디 마음에 들기를 바라요, 탐사자 경.”

그것을 받아들고 천을 풀어봅니다. ……잘 세공된 검이네요. 가드에 사파이어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분명 장식용으로 제작한 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화려하다는 감상이 드네요.

그 푸른 보석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당신에게도 비슷한 보석이 있었죠. KPC의 말로는, 황성 지하에 봉인된 마도서의 봉인을 풀 수 있다던……. ……그래요. 원흉은 바로 마도서잖아요. 그 누구의 손에도 마도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마도서를 가로채는 겁니다.

(BGM : Agitato)

(<https://www.youtube.com/watch?v=EZo8kuTGImg>)

황성 지하로 향하는 입구를 지키는 건 기사단장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약 한 달 가량의 일정이 미리 정해져 근무표가 나오곤 하죠. 교대로 낮에는 기사들이, 밤에는 기사단장이 보초를 섭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당신의 순번입니다.

사위가 고요합니다. 수 백 년간 봉인되어 있던 마도서다보니 근래에 들어서서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이도 없고, 보초 역시 형식적인 의례가 된 지 오래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전생에서 KPC를 그냥 놓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들어가려면 타이밍은 지금 뿐입니다.

두꺼운 철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주변이 고요해서 그런지 소리가 더욱 크게 울리는 듯합니다. 문 안쪽으로는 끝없는 어둠이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펼쳐집니다. 등불을 들고 벽을 더듬으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다보면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이 아닌 다른 빛이 시야를 밝히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째서 점점 밝아지는 거죠? 의문이 들 때쯤…… 갑자기 눈 앞으로 화살 한 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콧등이 살짝 베인 듯 따끔합니다. 한 걸음만 더 갔어도 머리가 꺾뚱렸을 겁니다. ……함정입니다. 화살 한 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직감이 듭니다.

(트랩입니다. 총 3개의 트랩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를 피할 때마다 민첩 대항 판정을 합니다. 트랩의 민첩 특성치는 50으로 고정합니다. 대항 판정에 실패할 경우 간신히 피하며 체력이 감소합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 트랩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곧, 수십 대의 화살이 당신을 향해 쏟아집니다. 서둘러 도망칩시다! **민첩 대항 판정(0/1D6)**.

숨을 돌리려던 그 때, 발 밑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양 옆의 벽이 당신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어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첩 대항 판정(0/1)**.

달리다 보면 드디어 계단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마지막 계단을 밟았을 때…… 머리 위에서 무언가 반짝, 하더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날카로운 텃입니다. 빨리 피합시다! **민첩 대항 판정(0/1)**.

정신없이 가장 밑바닥에 도착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좁은 원형의 공간 정중앙에 받침대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위로는 알 수 없는 문양의 푸른 빛무리가 둘러져 있습니다. 당신은 어렵지 않게 예상합니다. 저것이 바로 마도서를 둘러싼 봉인이라고.

받침대의 기둥에 무언가가 적혀있는 것이 보입니다.

[모국어 판정]

성공 : 우리는 한 번 실패했으나 영원히 죽어있지 않으므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신을 불러오리라. 열쇠의 심장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실패 : 우리는 한 번…… 죽어있지…… 언젠가 다시…… 신을…… ……심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오래되어 그런지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자 푸른 빛무리가 요동치듯 움직입니다. 보석을 가까이 대면, 마치 폭죽이 터지듯이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허공에 부유하듯 느리게 떨어지는 빗가루가 절경입니다. 받침대 위, 당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찾으려 온 **마도서**가 드디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마도서]

많이 낡았지만 먼지 한 톨 쌓이지 않은, 고풍스러운 표지의 책입니다. 제법 두껍네요.

펼쳐보면, 각종 마법의 주문들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들도 있고, KPC의 노트에서 보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괴물을 소환하는 주문이 대부분 입니다만…… ……아, 시간과 관련된 주문들이 눈에 띕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주문, 미래로 떠나는 주문……. 전생에서 KPC는 이 주문을 기억해두었다가 사용한 걸까요?

마도서를 읽은 탐사자, **이성 1D3 감소**.

당신은 시간과 관련된 주문들 바로 다음 페이지가 조금 두꺼운 것을 발견합니다. 아, 두 장이 붙어 있었던 모양이네요. 조심스레 떼어내면, 시간의 사냥꾼이라 적힌 글씨가 보입니다. 시간의 모서리에 살고 있는 이 존재들은 시간의 틈새에서 인간을 마주치면 그 즉시 추적과 공격에 나선다. 쫓아내는 방법은……. 그 아래로는 쫓아내는 주문이 적혀 있습니다. (KPC는 이 페이지를 발견하지 못해 틴달로스의 사냥개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다보면, 앞선 주문들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크기로 열쇠의 금지된 노래라 적힌 글씨가 보입니다. 그 아래로는 다른 주문들에는 없는 주의사항과 주문이 적혀 있습니다. 높이가 10m 이상인 석탑에 인간 제물을 바치면 비로소 신이 강림한다. 시간과 공간을 관장하는 신은……. ……기시감이 들며 두통이 입니다. 높이가 10m 이상인 석탑과 인간 제물…… 이걸 마치 처형대 위의 KPC가 아닌가요?

두통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럴 수록 당신의 머리속에 강렬한 잔상이 번쩍, 또 번쩍거립니다.

잔상 속의 당신은, KPC의 목을 내리칩니다. KPC의 몸이 기울고……. 멈춰버린 KPC의 심장에서 푸른 보석이 빠져나옵니다. 당신은 허공으로 떠오른 그 엄지 손톱만한 크기의 보석을 손에 넣습니다.

깜빡.

또 다른 잔상 속의 당신은, 도저히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생김새의 존재 앞에 놓여있습니다. 무력한 어린양이 되어, 신의 앞에 놓여있습니다. 신은 크게 분노하였고……. 당신을 과거로 돌려보냅니다.

깜빡.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온 이유를요. 아니, 알고 있었으나 강제로 지워졌던 것입니다. 당신은 의도치 않게 신의 분노를 사버린 KPC를 쫓아 과거로 보내졌습니다. 제물 주체에 감히 신의 파편을 가진 채 신의 권능을 사용했으니 신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로구나. ……신은 분명 그리 외쳤습니다. 당신은 보석을 전 덕에 대리인이 되었고……. 당신이 과거로 돌아온 이유는, KPC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린 탐사자, **이성 판정(1/1D3)**.

……아벨리아 황녀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신은 분명히 전생에서, 죽은 KPC의 앞에 강림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KPC는 아벨리아 황녀를 죽이기 위해 과거로 돌아왔고, 당신은 KPC를 죽이기 위해 과거로 돌아왔고……. 당신을 죽이기 위해 과거로 돌아온 괴물도 있고요. 당신은 분명 시간의 틈새에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이글거리는 눈, 박동하는 푸른 피부를 가진 시간의 사냥꾼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잊고 있던 기억입니다.

뢰비우스의 피처럼 순환하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요?

아벨리아 황녀를 죽일 경우 **END. 1**

아벨리아 황녀를 죽이지 않을 경우 **END. 2**

아벨리아 황녀를 죽이지 않고 마도서를 없앨 경우 **END. 3**

아벨리아 황녀를 죽이지만 KPC와의 첫만남에서 회귀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을 경우 **END. 4**

KPC를 죽일 경우 **END. 5**

§END. 1

(BGM : Waltz n° 5)

(<https://www.youtube.com/watch?v=DZhS6l08mCQ>)

며칠이 지나 아벨리아 황녀의 외출 금지령이 풀렸습니다. 기쁨에 찬 아벨리아 황녀와는 달리 당신은 긴장에 차 있습니다. KPC는 아벨리아 황녀를 샤투의 오두막으로 데려오라 했었죠. 어떻게 말을 꺼내는 게 좋을까요.

아벨리아 황녀는 당신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예전이라면 그저 순수한 미소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미소 뒤에 감춰진 계략이 보이는 듯합니다. 아니나다를까, 아벨리아 황녀의 영원한 외출에는 타미도 함께입니다.

밤의 샤투는 당신도 처음이지만 낮 못지 않게 황홀하네요. 달이 강물에 투명하게 비쳐, 마치 두 개의 달이 떠 있는 듯한 환상이…… 아, 이럴 때가 아닙니다. 구경하며 냇을 놓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KPC가 오두막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행히 아벨리아 황녀는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아벨리아 황녀와 타미는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듯 서서히 걸음을 옮깁니다. 이윽고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오두막 안에서 신이 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니, KPC입니다. 그러나 저 자태를 신이라는 말 외에 달리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 날만을 위해 준비한 드레스 같습니다. 신은 KPC가 신의 자리를 넘본다며 분노했지만, KPC라면 마땅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벨리아 황녀는 KPC의 등장에 당황한 듯 몸을 굳힙니다.

“아무래도 황녀님을 지키는 검은 이제 제 것인 것 같네요.”

KPC의 말을 신호탄으로, 당신은 검은 뽑아듭니다. 가드에 사파이어가 장식되어 있는, 쓸데없이 화려하기만 한 검은요. 아벨리아 황녀는 자신이 하사한 검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당신이 크게 검은 휘두르는 동시에 아벨리아 황녀가 다급히 당신을 돌아봅니다. 사방으로 피가 튀고…… 겁에 질려 달아나려는 타미의 복부를 순식간에 관통합니다.

커다랗게 확장된 동공,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벌어진 입술. 영락없이 충격을 받은 표정입니다. 아벨리아 황녀의 입장에서는 가히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옳은 결정을 내린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KPC는 이미 숨이 멎어가는 아벨리아 황녀에게 품 속에서 꺼낸 단도를 박아 넣습니다. 찌르고, 찌르고, 분이 풀릴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는 모습이 섬뜩하다기 보다는 그저 우아한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KPC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가 피로 덧씌워집니다. 당신은 앞으로 샤투에서 어떤 순간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시체는 강에 던져버려요.”

……아벨리아 황녀와 타미의 시체가 강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오르겠지만 그 때는 이미 샤투에서 먼 곳까지 떠내려간 이후겠죠. 쉽게 범인을 찾지는 못할겁니다.

“황녀의 시체가 발견되면…… 멀리 도망갈까요, 우리?”

목표를 이룬 사람과 목적을 잃은 사람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서로와 함께라면 새로운 삶을, 달라진 미래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PILOGUE.

아벨리아 황녀의 시체가 발견되고, 장례식을 치른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KPC와 도주를 준비하던 당신은 언젠가 보았던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이글거리는 눈, 박동하는 푸른 피부…… 그것들을 가진 괴물이 나타나는 모습ைய요. 이제는 압니다. 저 괴물이 바로 시간의 사냥꾼이라는 것어요.

마도서에 분명 시간의 사냥꾼을 쫓는 주문이 나와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마법사가 아닙니다. 주문을 외려면…….

보석을 삼킵니다. 한때 마녀의 심장에 박혀 있던 보석은 한 생애를 거슬러 당신의 심장에 박힙니다. 이대로 괴물을 쫓아내면 비로소 당신에게 위협이 될 요소는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KPC가 아닌 당신이니, KPC는 더는 마녀가 아니며 당신은…….

탐사자 생환. KPC 생환.

§END. 2

(BGM : Epilogue of Truth)

(<https://www.youtube.com/watch?v=TNtNdVx9SBg>)

전생은 전생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아벨리아 황녀가 마도서를 손에 넣지만 않으면 될 거라고, 당신은 참 안일하게도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마도서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었나요?

마도서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금세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생에서는 마도서를 훔친 마녀를 추적하는 것으로 책임을 질 수 있었는데, 마도서를 훔친 이가 바로 당신이니 만회할 수 있는 실책이 아니군요.

당신은 기사단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봉인을 어떻게 풀었는지 심문당하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마도서는 다시 황성으로 넘어가 불안한 나날들이 지속됩니다. 당신은 이따금씩 울적울적 차오르는 그리움을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KPC는 이 나날들을 어떻게 지내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황성에 퍼지는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황성이 아닌 제국 전체를 가득 매운 절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벨리아 황녀를 죽였어야 할까요? 그게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당신은 전생에서 보았던 신 앞에 다시 한 번 놓여졌습니다. 흐르고 터지며 형체를 바꿔대는 구체들의 집합. 대체 누가 이 재앙에게 신이라 이름을 붙였나요.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겁니다. **이성 판정(1D10/1D100).**

신이 당신을 향해 외칩니다. *신의 자리를 넘본 제물을 직접 거두어 갈 것이다. 너는 나의 강림을 도왔으니 자비를 베풀어 시간의 사냥꾼을 함께 거두어 가겠다.* 당신은 천지를 울리는 음성에 압도되어 손가락 하나조차 까딱할 수 없습니다. 신이 이 땅을 휩쓰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KPC는 물론 이 땅에까지 파멸을 불러옵니다. 황폐해진 땅에 홀로 남아 미래로 나아가는 게, 진정 의미있는 일인가요?

탐사자 생존? KPC 로스트.

§END. 3

(BGM : Epilogue)

(<https://www.youtube.com/watch?v=Yov3aUvwuSE>)

원흉이 되는 마도서를 없애기로 합니다. 불타올라 재가 되어 없어지는 마도서는 그저 평범한 책일 뿐이네요. 이제 제국에 신이 강림할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KPC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나요? 당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나요? 이제 정말 당신이 알고 있는 미래는 없고 새로운 나날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도서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금세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생에서는 마도서를 훔친 마녀를 추적하는 것으로 책임을 질 수 있었는데, 더는 존재하지 않는 마도서를 추적할 수는 없으니 당신이 만회할 수 있는 실책이 아니군요.

당신은 결국 기사단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아벨리아 황녀의 낮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KPC는 파면당한 당신에게 찾아와 원망을 쏟아냅니다. 당신은 그저 담담히 모든 것에 순응할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내린 결정이 불러온 결과에 만족하나요?

허울 뿐인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환호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허무한 평화가요.

EPILOGUE.

마도서를 불태우고, 당신이 기사단장직을 내려놓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잠시 고향으로 돌아간 당신은 언젠가 보았던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이글거리는 눈, 박동하는 푸른 피부…… 그것들을 가진 괴물이 나타나는 모습일요. 이제는 압니다. 저 괴물이 바로 시간의 사냥꾼이라는 것을요.

마도서에 분명 시간의 사냥꾼을 쫓는 주문이 나와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마법사가 아닙니다. 주문을 외려면…….

보석을 삼킵니다. 한때 마녀의 심장에 박혀 있던 보석은 한 생애를 거슬러 당신의 심장에 박힙니다. 이대로 괴물을 쫓아내면 비로소 당신에게 위협이 될 요소는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KPC가 아닌 당신이니, KPC는 더는 마녀가 아니며 당신은…….

탐사자 생환. KPC 생환.

§END. 4

(BGM : Waltz n° 5)

(<https://www.youtube.com/watch?v=DZhS6l08mCQ>)

며칠이 지나 아벨리아 황녀의 외출 금지령이 풀렸습니다. 기쁨에 찬 아벨리아 황녀와는 달리 당신은 긴장에 차 있습니다. KPC는 아벨리아 황녀를 샤투의 오두막으로 데려오라 했었죠. 어떻게 말을 꺼내는 게 좋을까요.

아벨리아 황녀는 당신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예전이라면 그저 순수한 미소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미소 뒤에 감춰진 계략이 보이는 듯합니다. 아니나다를까, 아벨리아 황녀의 영원한 외출에는 타미도 함께입니다.

밤의 샤투는 당신도 처음이지만 낯 못지 않게 황홀하네요. 달이 강물에 투명하게 비쳐, 마치 두 개의 달이 떠 있는 듯한 환상이…… 아, 이럴 때가 아닙니다. 구경하며 녀를 놓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KPC가 오두막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행히 아벨리아 황녀는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아벨리아 황녀와 타미는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듯 서서히 걸음을 옮깁니다. 이윽고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오두막 안에서 신이 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니, KPC입니다. 그러나 저 자태를 신이라는 말 외에 달리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 날만을 위해 준비한 드레스 같습니다. 신은 KPC가 신의 자리를 넘본다며 분노했지만, KPC라면 마땅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벨리아 황녀는 KPC의 등장에 당황한 듯 몸을 굳힙니다.

“아무래도 황녀님을 지키는 검은 이제 제 것인 것 같네요.”

KPC의 말을 신호탄으로, 당신은 검은 뽑아듭니다. 가드에 사파이어가 장식되어 있는, 쓸데없이 화려하기만한 검은요. 아벨리아 황녀는 자신이 하사한 검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당신이 크게 검은 휘두르는 동시에 아벨리아 황녀가 다급히 당신을 돌아봅니다. 사망으로 피가 튀고…… 검은 질려 달아나려는 타미의 복부를 순식간에 관통합니다.

커다랗게 확장된 동공,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벌어진 입술. 영락없이 충격을 받은 표정입니다. 아벨리아 황녀의 입장에서는 가히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옳은 결정을 내린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옳은 결정을 내린 게 맞겠죠?

KPC는 숨이 멎어가는 아벨리아 황녀를 보며 미소짓습니다. 환호도, 기쁨도, 행복도 아닌 비릿한 미소는 이내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어쩐지 섬뜩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탐사자 경. 나는 경에게 황족 시해의 죄값을 물을 거예요.”

“도망간다면 끝까지 쫓아가 경을 잡아들이고 목을 치겠죠. 경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나는 경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KPC는 피 한방울 묻지 않은 드레스 자락을 사뿐히 들고 미련 없이 당신을 떠납니다. ……당신에게 남은 것은 알량한 대의 뿐입니다. 검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KPC는 증인이 되어 당신마저 죽음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처형대 위에 오르는 건 당신이 될 것이고, 이후의 일을 당신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KPC를 잡을 수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은 복수의 대상일 뿐이었는지, 진정 한 줌의 미련도 남지 않았는지…….

탐사자 로스트. KPC 생존.

§END. 5

(BGM : Prologue)

(<https://www.youtube.com/watch?v=Bemc2IWpk48>)

가만히 집무실에 앉아 있다보면 계속 KPC를 떠올릴 것만 같아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려도 불안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군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훈련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죠.

훈련장의 분위기는 여느때와 같이 활기칩니다. 당신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한 기사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단장님,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공녀가, 아니 공녀님이 피습을 당했다고…….”

……당신은 그제야 이 활기찬 분위기가 애써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식을 알고 있던 기사들은 하나같이 당신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당신에게 직접 말을 꺼내는 간 큰 기사에 경기를 일으키며 놀랍니다. 기사들은 그저 당신과 KPC가 깊은 관계였다 추측하고 당신을 걱정하는 것이겠죠. 당신이 바로 KPC를 죽음으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지요.

그래요. KPC가 죽은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공작가에서는 범인을 찾겠다 선포했지만 아마 쉽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겠죠. ……후회할 것 없어요. 마녀가 죽었잖아요. 당신은 옳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늘이 유독 파랗습니다. 그 어떤 파멸도 다가오지 않을 평화를 지켜낸 겁니다.

EPILOGUE. (탐사자가 직접 KPC를 죽였을 경우.)

KPC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당신이 혼자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당신은 언젠가 보았던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이글거리는 눈, 박동하는 푸른 피부…… 그것들을 가진 괴물이 나타나는 모습을요. 이제는 압니다. 저 괴물이 바로 시간의 사냥꾼이라는 것을요.

마도서에 분명 시간의 사냥꾼을 쫓는 주문이 나와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마법사가 아닙니다. 주문을 외려면…….

보석을 삼킵니다. 한때 마녀의 심장에 박혀 있던 보석은 한 생애를 거슬러 당신의 심장에 박힙니다. 이대로 괴물을 쫓아내면 비로소 당신에게 위협이 될 요소는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KPC가 아닌 당신이니, KPC는 더는 마녀가 아니며 당신은…….

탐사자 생존. KPC 로스트.

EPILOGUE. (길드에 암살 의뢰서를 전달했을 경우.)

KPC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당신이 혼자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있던 당신은 언젠가 보았던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이글거리는 눈, 박동하는 푸른 피부…… 그것들을 가진 괴물이 나타나는 모습을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한때 저 괴물에게서 당신을 구해줬던 KPC는, 더는 당신의 앞에 기적처럼 등장하지 못합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어쩔지 몸이 바짝 굳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해 돌진하는 괴물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봅니다. 아, KPC를 외면한 것에 대한 업보일까요. 이대로 KPC의 뒤를 따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탐사자 로스트. KPC 로스트.